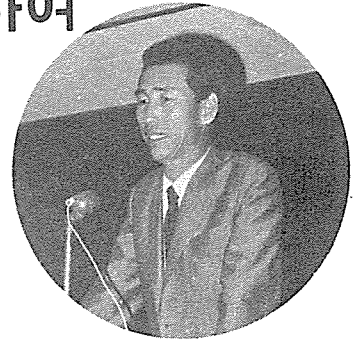


現代建築意匠에 對하여

嚴 德 紋



우리나라 建國以來 建築祝祭란 처음이다. 慶事스러운 일이며 고마운 일이다. 또 이 잔치에서 내가 講論을 하게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榮光인가 나는 여기서 時間 關係上 概念的인 것만 말하기로 하겠다. 本論에 들어가기 前에 過去를 더듬어 보기로 하자. 오늘날의 建築이란 本來있었던 것은 아니다. 人類의 發達과 더불어 오랜 歲月을 두고 必要에서부터 自然에서 느낌에서 經驗에서 꾸준히 發展하였다. 더우기 人間의 周圍를 에워쌓인 大自然은 數萬年을 通하여 現在까지 끊임없이 個體自身의 어느 目的下에 自記使命에 充實하여왔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自然은 永久한 過程을 通하여 우리들에게 스승이 되었고 師範이 되어서 先驅的인 指針의 敎示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自然은 곧 科學이 되었고 科學은 具體的인 機能面까지를 暗示에서 表現에까지 이끌어 주었다. 故로 人間原始에서 現在까지 自然에서 敎示를 받아 왔다는 事實을 否定할 수 없다. 이러한 見地에서 오랜 人類의 史는 그 地方 地方에 따라 生活의 方式이 생기게 되는 傳統이라는 形式을 낳게되며 形態의 始作에서 發展되는 것이 工藝 建築 或은 (衣裳) 등의 造型의 傳統으로 化하게 되어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이러한 造型文化 以外에는 같은 根原에서 生覺하고 思索하게 되니 政治, 哲學, 文化, 經濟, 敎育等等 그 過程과 더불어 有形 無形의 傳統이 形成되어 地方과 地方, 나라와 나라의 文化를 形成하게 되고 固有化되어 계승하게 되는 것이다. 故로 傳統은 造作함이 아니라 有形無形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論調는 傳統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人間生活은 大自然의 影響을 받는다는 것과 또 大自然에서 배우게 된다는 事實을 강조하려 함에서이다. 우리는 여기서 自然을 살피기로 하자.

1. 自然에는 秩序가 嚴然하고
2. 個個의 性格이 嚴格이 分離되어 있으며.
3. 自然은 均衡의 標本이고.
4. 美의 象徴이며.
5. 科學의 極值 이기도 하다.

前記한 5項目을 分析한다면.

- ① 各自 虛勢없이 全體를 爲한 自己使命에 忠實한 任務를 다하고 있으며 嚴然한 秩序를 유지하고 있다.
- ② 性格에는 型態 乃至 形体가 前提로 되어있고 形体에는 素材 또한 不可分의 關聯으로서 合理化를 이루고 있다.
- ③ 自然界는 주고 받는 内外面的인 均衡으로부터 造型的으로는 力學的인 均衡까지를 維持하고 있다.

④ 前述한 各項의 滿足을 이루었을 時 美의 解決은 勿論이며 永久美를 形成케 한다.

⑤ 1~4項의 充實은 科學의 尖端을 意味하기도 하고 絶對性을 또한 意味하기도 한다.

以上 上述한 바는 自然界가 우리 生活에 주는 영향 및 敎示로서 具體的인 面을 烈擧하였거니와 主題인 '現代建築의 意匠'에 도움이될까 하였던 것이다.

本論인 現代建築意匠에 對하여서 우리建築士는 自然을 觀察할줄 알고 過去를 알아야 하며 未來를 理解하여야 한다고 본다. 現代는 過去의 產物인 同時에 또한 未來를 爲한 產物이며 創造이기도 하다. 오늘날 建築에서 意匠 云云하지만 비단 建築에 限한 論題만은 아니고 各分野에 屬한 問題이며 더우기 새삼스리 現代人에게 주어진 課題만도 아니다. 太古서부터 우리 人類는 自然界에서 배우고 느끼고 或은 모방으로서 '디자인'이라는 美의 追求를 계속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면 建築은 自然에서 무엇을 배워왔고 그 建築의 史는 어떠한 過程에서 오늘날에 일으렸던가. 建築은 時代의 거울(鏡)로서 그 時代의 與件에 따라 發生 乃至는 發展하여 왔다. 그리고 그 目的과 性格

에 따라 素材를 選擇하였고 素材에서 必然的으로 形態를 얻어서 生活에서 젖어진 思考와 生活傳統에 立脚하여 手法과 樣式이 發達하고 또한 繼承되어 近代建築의 樣相을 이루었고 이루어진 그 形態가 우리의 固有美를 자장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韓國建築의 傳統이라고 불리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現代에 이르러서는 다르다. 卽 現代라는 여건이 根本的으로 달라졌다. 思想, 宗教, 政治, 文化等 所謂 國際性을 갖게 되니 氣왕의 모든 思考는 오늘날에 와서 一元化 되는 傾向이다. 여기에는 社會工業發達로 因한 素材의 生産도 生活의 方法도 國際化되어 復雜한 形態에서 單純化하는 造型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故로 20世紀初에 이르러서는 國際建築의 流行을 보게되었던 것이다. 當時의 世界的인 建築家諸氏는 極贊說을 提唱하였고 이 영향은 日本을 爲始하여 우리 韓國 建築界에도 波及되었었다. 그 結果로 機能一辺渡로 處理되어 無味乾燥한 建物로서 情緒라고는 찾아볼 筈 없는 메마른 感情의 形態로 化하니 機能主義를 根本으로 삼는다는 競爭世界의 現代人이라고는 하더라도 人間의 基本要素인 精神世界에는 不滿을 아니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이를 充足키 爲하여 繪畵나 彫刻의인 要素를 人爲的으로 加味 處理하게하는 方向의 有名한 建築家들도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建築이란 人間을 담는 그릇(用器)이어서 科學的 解決보다는 精神的인 慾求를 追求하게 되니 國際建築型보다는 自己를 成長케 한 山川과 國土라고 몸에 젖은 風習과 言語에 알맞는 自己도 모르는 그 어느 形態와 色感 및 내음(臭)이 要求되었든 것이다. 그리하여 地方色 或은 國土風이 담긴 造型世界를 願하게 되니 國際建築은 이미 사라져가는 傾向이되고 마랐다.

따라서 初記에 前述한 바와 같이 大自然이 敎示하여준 與件 卽, 地理的 氣候的 要件과 더 붙어 오랜 歲月을 두고 視覺的인 訓練을 받던 生理的인 合理化되는 現代建築이야말로 우리의 現代建築이라 하겠고 또 이러한 傾向이 오늘날의 思潮이다. 그렇다해서 從來式의 復雜한 型과 樣式을 意味하는 것도 아니다. 單純化에는 變함이 없으나 地方 나뉠음으로의 性格과 表現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自然界에서 어떤 하나의 例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다람쥐와 熱帶地方의 다람쥐가 다르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진다. 故로 建築의 外觀은 勿論 内部의 詳細에 이르기까지 自然界의 植, 動物의 多樣한 形態 乃至는 色素, 돌과 岩石의 質感에 이르기까지 習得하여 建築造型 및 空間處理에 適切한 創意가 있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